

부처님의 숨결과 향기를 앵글에

사진작가 전제우 '보이는가, 숨은 붓다'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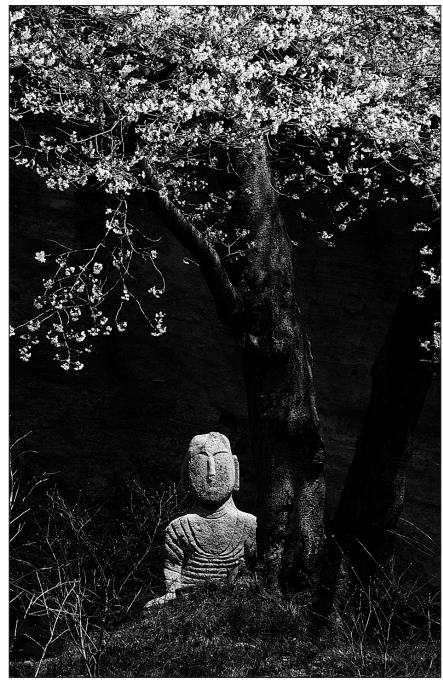
“지난 20여 년 불교사진을 찍기 위해 불교에 입문하고 산사를 찾아 기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는 목련, 벚꽃 아래 명상하듯 앉은 석불, 독서 삼매에 빠진 수행자, 히말라야 고산지역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 등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부처님 숨결을 느끼고, 부처님의 향기를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일 이죠.”

사진작가 전제우 씨가 제 7회 개인전 '보이는가, 숨은 붓다'를 10월 7일~15일 불일미술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국내 산사와 티베트 라다크 등을 여행하며 찍은 26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전 씨는 사진 안에 부처님의 숨결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한국 불교의 미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죠. 있는 그대로를 찍지만 그 안에서 예술성을 가미해 부처님의 숨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석불 작품이 많은데 이 또한 정제된 면 안에 갇히기 보다는 석불의 강약을 살려 포착해내 감동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2008년부터 라다크를 여행하



전제우 작가의 '휴(休)-1'

10월 7일~15일 불일미술관서
국내 산사와 티베트 등 여행
법향 담긴 작품 26점 선배

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도 삼매, 꿈빠순례 등의 작품으로 라다크를 만날 수 있다. “라다크를 그동안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수행자도 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관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삼매’는 스님이 목욕을 마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담아냈죠.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는 작품은 서용 스님의 생전 모습이다. “스님을 뵈기 위해 상도동을 찾아갔을 때 찍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진 촬영 전에 우연히 몇 컷을 찍은 것인데 정식으로 찍은 것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진이 나와서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작품이죠.”

작가는 앞으로도 자신의 모든 작품 안에 부처님의 법향을 녹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탐구하며 찾아도 못 찾은 부처님 법향을 찾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010-6365-506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음성공양으로 수행 이어나가고 싶어요”

김태란 찬불음반 '그 자리' 발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사람이 없나요 나는 누구인가 내 안의 주인공/ 그가 누구인가 내 안의 주인공/ 그가 누구인지 장님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어요 그 길을 말해 주세요 그 길을/ 내 갈 길을 몰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시나요 속에서

소프라노 김태란 씨(대구경북음악인협회 회장·사진)가 찬불음반 '그 자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음반에서 아시나요, 관세음보살 찬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무소유의 노래 등 불교적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한 12곡을 실었다.

특히, 타이틀곡 '아시나요'는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라고. “작년 겨울 구미 주원사에 찬불가 교육봉사를 갔다가 스님께서 음반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음반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지수화풍, 윤희, 해탈 등을 주제로 한 가사들을 통해 불법의 향기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번 음반은 불법자로서 불법 만난 기쁨을 세상에 회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관음악사 상임지휘자로, 대구 대원사와 구미 주원사 등에서 찬불가를 지도해온 그는 20대 때 불교음악과 인연을 맺었다고.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찬불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불교음악과 인연을 맺게 됐죠. 불교가 뭐지 모르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찬불가가 불음을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김태란의 '그 자리' 음반 표지

이렇게 30년 동안 함께 해온 그녀는 어 느날 자신이 불교의 그릇 안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그는 “노래로서 수행을 이어나가고 싶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1일 대구 북구 어울림아트센터 '이야기가 있는 불교음악회'라는 제목으로 독창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중생 고통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협녀(俠女), 칼의 기억

‘협녀(俠女) : 칼의 기억’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무협(武俠)영화이다. 무협영화를 영어로는 쿵푸(kungfu)영화라고 한다. 이소룡, 성룡, 이연걸로 계승되는 히어로를 만든 홍콩의 무협영화는 쿵푸라는 무예를 제재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쿵푸의 한자는 공부(功夫)라는 사실이다. 학문을 닦는다는 의미의 공부(工夫)와 음이 같거나 그 뜻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부(工夫)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면 공부(功夫)는 무예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정신수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그래서인지 무협 혹은 쿵푸 영화는 서사의 공식이 있는데, 영웅 신화와 유사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화적인 영웅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영웅은 왕과 왕비의 자식인데, 탄생 전에 이루어진 예언으로 인해서 태어나면 죽게 된다. 이 실패 기도는 부친의 발의에 의한 것도 많다. 아이는 신이 숨겨주어서 양부도 모를에서 자란다. 성인이 되면 영웅은 미래의 왕국을 향하고, 그 땅의 왕이나 거인 또는 악룡이나 괴수를 물리친다. 영웅은 왕녀와 결혼해서 왕이 된다. 그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은 가끔 산위에서이다. 이는 영웅의 출생, 왕위의 계승, 죽음에 관한 이야기의 3군으로 나눠보면, 라그란은 탄생, 성인식, 장례라는 인생의 3대 의례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프로이트의 제자인 오토 랑크는 <영웅 탄생의 신화>를 통해 영웅신화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반영이라고 봤다.

쿵푸 영화도 지난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물이 날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활달한 액션이 주는 재미이고, 둘째는 자아정체성 찾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엔 소개하는 ‘협녀: 칼의 기억’도 비록 흥행에서는 실패했지만 자아정체성 찾기에 주체 면에서 돋보이는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사형인 풍천을 배신한 유백(이병헌)과 유백을 사랑한 까닭에 사형을 배신하는 일에 본의 아니게 일조한 것을 참회하면서 살아온 설랑(전도연)과 자신의 친 부모를 죽여야만 비극의 역사를 중지부를 찍을 수 있는 홍이(김고은) 등 3명이다.

영화는 두 번의 반전을 꾀하는데, 홍이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이 유백과 설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장면이 첫 번째 반전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풍천이 아니라 유백이라는 사실, 즉, 자신이 죽여야만 하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세 인물 모두에게 연민이 느껴진다.

홍이의 칼이 벤 것은 ‘오브제 프티 아

“사감 버리고 대의 찾는 게 협의 길”

쿵푸와 공부는 정신수양에 목적 뒤

는 인물이 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장면이 두 번째 반전이다.

자신의 부모를 죽여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는 점에서 홍이의 캐릭터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모티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점은 오이디푸스는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는 반면 홍이는 알면서도 아버지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의 단점 중 하나가 자신의 부모를 죽여야 하는 홍이의 심리묘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은 홍이에게 복수심을 심어준 것이 설랑이므로 설랑의 심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이의 칼에 응징되는 것만이 풍천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설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 영화는 외려 대단히 새로운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 영화 속에서 행해지는 홍이의 복수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복수이고, 둘째, 그 복수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찾기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설랑은 홍이에게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협의 길”이라고 가르쳤고, 홍이는 어머니이기 전에 스승인 설랑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래

서 홍이는 복수의 날에 “풍천의 딸, 홍이가 왔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홍이가 죽이는 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의실적 아버지’, 즉, ‘오브제 프티 아(object little a)인 것이다. (라캉은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눠 분석했다. 상상계는 어린애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서 자아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단계이다. 따라서 그 자아는 주체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며 오히려 주체를 속이는 환영이다. 거울단계를 거친 어린애는 다시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권위를 내면화한다. 상징계는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세계이다. 아버지란 이 질서의 대표자이자, 주체가 동일시하는 대타자이다. 욕망이 대상을 향하는 단계가 상상계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얻는다고 욕망은 완성되지 않는다. 외려 어긋나 버린다. 이를 인식하는 게 상징계이다.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에 발생하는 잉여쾌락에 의해 다시 욕망이 지속되는 것이 실재계이다. 이 잔여물을 ‘오브제 프티 아’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 인물 모두에게 연민이 느껴진다. 연민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자비(慈悲)의 비(悲)에 해당한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慈)라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민(悲)이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관계의 바탕이 되는 숭고한 감정이다.

유용오 작가

실전 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처방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 ② 의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불조정맥 제77조 전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3번째 저서 출간!!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각 칙마다 명안중사의 눈으로 꿰뚫은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著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의 참 뜻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각권 15,000원 / 전권 구입시 15% 할인됩니다.
031-534-3373 / 010-4520-7963

<도서출판 바로보인>이
<도서출판 문젠>으로 개명되었습니다.